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2				제 [] 선택
----	--	------	--	--	--	---	--	--	--	----------

1.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에서 강조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의 여부를 밝혀야 한다.

(나)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핵심 탐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도덕 판단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람들을 도덕적 행위로 인도해야 한다.

- ① 윤리학은 행위의 지침이 되는 도덕규범을 제시해야 한다.
- ②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논리적 구조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
- ③ 윤리학은 도덕 명제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
- ④ 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항상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⑤ 윤리학은 도덕적 관습의 객관적 기술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2.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1인 미디어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어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 ① 갑은 개인에게 콘텐츠를 창작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공공선을 위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1인 미디어를 규제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선정성이 짙은 1인 미디어는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1인 미디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무릇 큰 도(道)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위대한 변론은 말하지 않으며, 위대한 어둠은 어질지 않고, 큰 청렴은 겸손하지 않으며, 큰 용기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도가 밝혀지면 도가 아니고, 말로 변론하면 도달하지 못하며, 항상 어질다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청렴이 맑기만 하면 미덥지 못하며, 용기가 남을 해치면 이루어지지 못한다.

- ① 예(禮)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회복하는 수단이다.
- ② 시비선악(是非善惡)의 상대적 분별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인간이 아니라 자연만이 순수한 자연의 덕을 타고 난다.
- ④ 옳고 그름의 기준을 확립하여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한다.
- ⑤ 인의(仁義)의 도덕규범을 통해 사회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

4.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0000년 00월 00일

칼럼

효(孝)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윤리적인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효도법을 제정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불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효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 실천하는 것이다. 효를 중시하는 전통 윤리의 정신을 되살려 자발적으로 효를 실천해야 한다.

- ① 노부모 부양 문제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②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라도 효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 ③ 부모 부양을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
- ④ 효도법 제정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 ⑤ 효의 가치를 회복하여 자율적으로 부모 부양을 실천해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에게서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까 결정하는 일은 오로지 이 두 군주를 위한 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쾌락과 고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범위 등을 기준으로 계산 가능하다.

<사례>

고등학교의 한 학급에서 '불우 이웃 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 학급의 A는 무선 이어폰을 사기 위해 모은 용돈이 있지만,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부를 망설이고 있다.

- ① 남을 돕는 행위 그 자체가 옳다는 것을 고려해 판단하렴.
- ②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위하렴.
- ③ 기부가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지 말고 동정심을 발휘하렴.
- ④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 의식에 따라 행동하렴.
- ⑤ 자신의 쾌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부 여부를 결정하렴.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되는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작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을: 형벌은 형벌의 질과 양을 규정하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그 원리에 따라 범죄자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아도, 그를 사물로 대해서는 안 된다.

————— <보 기> —————
 ㄱ. 갑은 형벌의 효과가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에 달려 있다고 본다.
 ㄴ. 을은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에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범죄자를 항상 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형벌의 근본 목적이 사회적 해악의 예방이라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류의 생각과 행동이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덕분이다. 인간은 경험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해 과오를 고칠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악이 된다. 그 견해가 옳은 경우에는 인류가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빼앗긴 것이고, 틀린 경우에는 오류와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욱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놓친 것이다.

————— <보 기> —————
 ㄱ. 토론의 전제 조건은 진리로 검증된 내용만 발언하는 것이다.
 ㄴ. 토론에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ㄷ. 토론으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판단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ㄹ. 토론에서 다수가 주장한 내용은 모두 진리로 수용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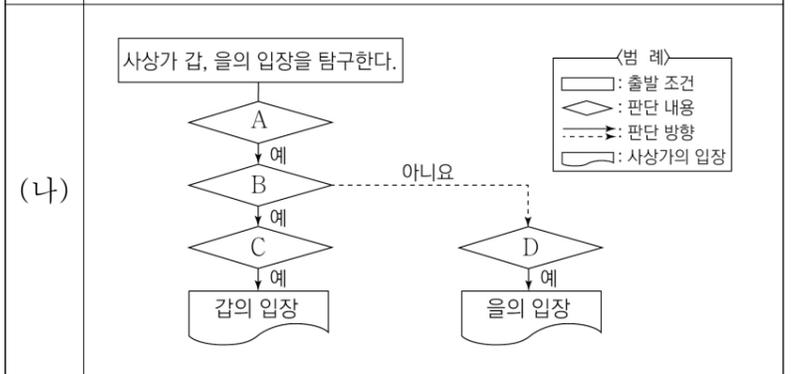
8.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과학 공동체의 일원인 과학자의 윤리적 책임은 내적 책임뿐이다. 과학은 윤리학과 달리 가치 중립적으로 사실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해 지식과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만이 과학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을: 과학자는 과학 공동체의 일원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도 져야 한다. 따라서 과학자는 윤리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자신의 연구가 많은 대중들에게 미칠 영향력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

- ① 과학자는 연구 과정 자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간과한다.
 ②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표절을 하지 말아야 함을 간과한다.
 ③ 과학자는 이론 정립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간과한다.
 ④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따라야 할 내적 책임이 있음을 간과한다.
 ⑤ 과학자는 연구 결과의 사회적 부작용도 고려해야 함을 간과한다.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자연적 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다고 가정한다.
 을: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좁은 기능에 제한된 최소 국가는 정당화된다.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정한 것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 <보 기> —————
 ㄱ. A: 분배 절차가 공정하다면 분배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는가?
 ㄴ. B: 경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도 정의로울 수 있는가?
 ㄷ. C: 원초적 입장에서의 개인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가?
 ㄹ. D: 부정의한 소유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과거부터 차별받아 왔던 집단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고졸 채용 할당제는 오랫동안 취업, 연봉,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던 능력 있는 고졸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을: 물론 과거의 차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졸 채용 할당제는 열심히 노력한 대졸자에게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으므로 사회 정의에 어긋납니다.
 갑: 아닙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벌 위주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능력 있는 고졸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을: 공정한 기회 제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졸 채용 할당제는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고졸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 ①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한가?
 ②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공정한 기회 제공이 필요한가?
 ③ 과거부터 차별받아 왔던 집단에 대한 보상은 정의로운가?
 ④ 고졸 채용 할당제는 역차별을 유발하는 부당한 정책인가?
 ⑤ 필요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가치를 분배해야 하는가?

1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어떤 개체가 믿음, 지각, 기억,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쾌고를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하며,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등을 지닌다면 '삶의 주체'이다.</p> <p>을: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내적 기능과 외적 활동이 모두 목적 지향적이고,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종(種)을 지속시키려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p>
(나)	

<보 기>

ㄱ. A: 인간은 동물에게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이다.
 ㄴ. A: 모든 동물은 삶의 주체이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ㄷ. B: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ㄹ. C: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지닌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되고 그 후에야 다스림을 받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법률을 정의처럼 존중하는 생각을 길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가 마땅히 소유해야 할 유일한 의무는 어느 때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을: 시민 불복종은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낸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 ① 갑: 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② 갑: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양심이 아니라 법에 대한 존경심이다.
 ③ 을: 시민 불복종은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적 저항이다.
 ④ 을: 시민 불복종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
 ⑤ 갑, 을: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13.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임신은 임신한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태아는 아직 인간이 아니고 여성의 몸의 일부일 뿐이며, 여성은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 따라서 여성이 태아에 대한 인공 임신 중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을: 임신은 임신한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다. 태아도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할 존재이므로 인공 임신 중절은 정당하지 않다. 임신한 여성이 깊이 고민하여 결정한 임신 중절이라도 무고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보 기>

ㄱ. 갑: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정당하다.
 ㄴ. 갑: 태아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ㄷ. 을: 태아는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존재이다.
 ㄹ. 갑, 을: 무고한 인간을 해치는 임신 중절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개인은 이성적 능력을 통해 정의감을 키워 가며, 그 결과 사회적 상황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기주의적인 요소들을 정화시킨다. 그러나 사회 집단들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개인들에 비해 훨씬 획득되기 어렵다.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욱 생생하고 누적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 ① 개인이 지닌 양심만으로도 사회 정의는 충분히 실현된다.
 ②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 집단의 도덕성보다 언제나 열등하다.
 ③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 않다.
 ⑤ 집단 간의 관계는 주로 도덕적이고 합리적 판단에 의해 형성된다.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를 지정하였고,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召命)이라고 하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신이 보기에 찬란하고 고귀한 것임을 깨닫는다.

<보 기>

ㄱ. 소명으로서의 모든 직업은 본래 귀천의 구별이 없다.
 ㄴ. 직업을 통해 얻은 모든 부는 신의 뜻을 어긴 결과이다.
 ㄷ. 직업 생활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ㄹ. 직업 활동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영혼을 풀려나게 하는데 언제나 가장 열심히 사람들은 오직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하는 사람들뿐이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련이란 것도 바로 이것, 즉 몸으로부터 영혼의 풀려남과 분리일 것이다.
 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습관을 들여라. 모든 좋고 나쁜 것이 감각에서 비롯되는데 죽음이란 감각의 정지이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우리의 덧없는 삶을 비로소 유쾌하게 만들어 준다.

- ① 죽음 이후에 참된 지혜를 파악할 수 있는가?
- ② 죽음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상실되는가?
- ③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현명한가?
- ④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 없어진다고 보는가?
- ⑤ 자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고 보는가?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공포의 느낌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윤리적 의무이다. 이 공포는 앞으로 태어날 예정인 자들에 대한 것이다. 공포가 가장 구체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미래의 인류가 동일시되어야 한다. 책임의 대상은 인류의 미래이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공포를 의무로 받아들이고 일상화하도록 만든다.

- ① 현세대는 인류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도록 행위해야 한다.
- ② 인류는 이성을 지닌 존재만을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③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호혜성에 따라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
- ④ 기술이 초래할 미래의 공포보다 기술의 혜택에 주목해야 한다.
- ⑤ 인간은 자신이 의도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더라도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사례>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는 A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 실험을 계속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 ① 동물은 의식을 지니지 않은 기계적인 존재임을 고려하렴.
- ② 인간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이익보다 항상 우선됨을 고려하렴.
- ③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이성적 존재에게만 적용됨을 고려하렴.
- ④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행위의 주체임을 고려하렴.
- 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음을 고려하렴.

19.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욕구 충족을 위한 성적 관계는 모두 부도덕하다고 본다.
- ② 을은 성(性)의 본래적 목적을 쾌락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본다.
- ③ 병은 결혼 여부에 따라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판단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성적 관계에서 상호 간 동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 ⑤ 갑, 을, 병은 성적 관계를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라고 본다.

20.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녀의 지능, 체력 같은 일반적 능력 향상을 위한 부모의 유전학적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전학적 강화에 의해 태어난 자녀는 자신을 자유로운 인격체로 인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녀의 능력을 부모가 계획함으로써 자녀의 삶에 대한 부모의 지배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을: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교육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듯이, 지능과 체력 같은 자녀의 일반적 능력 향상을 위한 유전학적 강화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갑: 당신은 그러한 유전학적 개입이 ㉠은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 ① 자녀의 삶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 ② 자녀를 자율적 인격체로 살아가기 어렵게 한다
- ③ 자녀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는다
- ④ 우수한 자녀를 출산할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
- ⑤ 태어날 자녀의 일반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